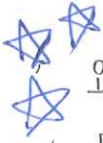


## 제 목 : 작은 것도 가까이서 보면 무섭운 시간.



오늘은 할아버지 논에 가는 날이 왔다.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다.

드디어 차를 타고 할아버지의 논에 갔다. "안녕하세요" "어여와라" 그래서

나는 부츠를 신고 논에 들어갔다. 논에 들어가니 부츠를 신어도 계속물이

세어 들어 왔다. 그렇게 계속 형과 놀고 있었는데 웬 지렁이 같기도 하고

뱀같기도 한게 우리 옆을 지나갔다. 나와 형은 놀라서 얼른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머리였다.

나와 형은 거머리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더 가까이 갔다. 하지만 "으악" 논에

빠져버렸다. 몸을 일으켜서 나올려고 했을때 내 손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게 보였다. 나는 놀라서 숨을 잘 못 잡았다.

그때를 틈타 형이 나를 논 속으로 밀어 넣었다.

풍덩! 다시 논에 빠져버렸다.

말단 나는 논에다가 밖위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던져버리고

형을 쫓아갔다. 바로 그때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고 했다.

형한테 복수를 못 한게 아쉬웠지만 재밌는 시간이였다.